

2026년 8월 19일

Hana FX Daily Letter

잔존하는 수급 리스크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위험회피 심리와 국내 증시 외인 자금 이탈에 상승

daily range 예상: 1,410~1,420원

■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 부각, 이는 주요국 국내 금리 불안을 자극하고 있음. 이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여기에 뉴욕증시 기술주 급락 여파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이 가중될 수 있음. 다만, 상단에서는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며 상승 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금일 달러/원 환율은 1,410원대 중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

■ 전일 동향 : 18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3.1원 내린 1,412.5원 마감

장 초반, 미-이란 중전 MOU 시한 종료 등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된 영향으로 상승 출발. 이후 수출업체 매도물량 유입되며 하락 전환해 1,410원선 하회하기도 했으나, 저가 매수세에 하단 지지되며 주간 거래는 1,411.8원에 마감.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중동 사태에 대한 관망세 속 1,410원대 초반에서 주로 등락하다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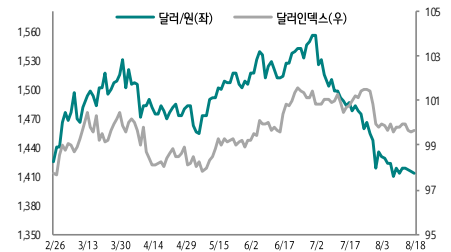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이란 협상 기대가 약화되며 국제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미 국내 금리 불안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나타나면서 달러는 강세 압력을 받음
- (유로-달러) 독일 경제심리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큰 폭 개선되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 부진 등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에 유로화는 소폭 약세를 나타냄
- (달러-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 및 국제유가 오름세 속에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160엔선 앞두고 당국 개입 경계감에 상단은 제한됨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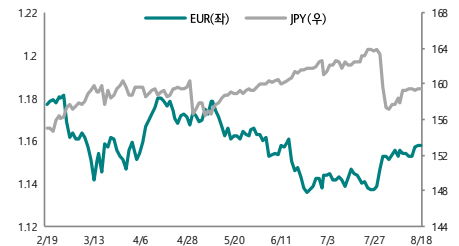
-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올해 초 순매수 규모가 차츰 축소되다 4~5월 들어 순매도로 전환된 바 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7월 들어 약 46억 달러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재반등하는 양상임. 이와 같은 상반기 순매도 전환은 정부의 국내 증시 부양 정책과 국내 증시의 상대적 강세, 그리고 고환율에 따른 환차익 실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내 복귀 유인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러나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반면, 원화 강세 흐름으로 해외 자산의 진입 가격 부담은 낮아지면서 해외 투자 수요가 다시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여짐. 그리고 이와 같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재확대는 실질적인 달러 매수 수요 증가를 유발할 수밖에 없음. 최근 주요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입 되는 등 외환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원화 환율은 1,400원 초반대에 안착해가는 모습임.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고환율 국면에서 대외 증권 투자를 통한 수급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내 투자자의 대외 자산 투자 확대 흐름이 지속될 경우, 향후 원화 환율의 반등을 유발하는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417.0	1,417.0	1,408.0	1,412.9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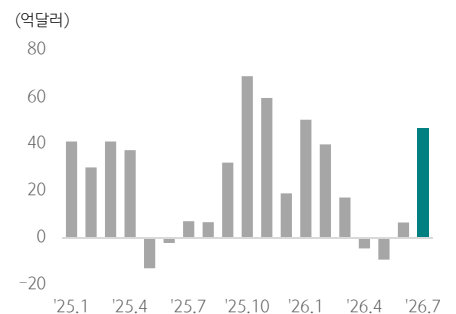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576	159.52	6.7460
전일대비	-0.0005	+0.08	+0.0035
재정환율	1,633.10	885.01	209.54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5:00	영국 7월 CPI상승률(YoY)	2.9%	2.6%
18:00	유로존 7월 CPI상승률(YoY)	2.9%	2.8%
03:00	FOMC 의사록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시 투자 추이



자료: SEIBRO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